지역과 함께 이룬 50년…100년 향해 고객과 함께 뛴다

광주은행 창사 50년

광주은행 전경

광주은행이 송종욱 행장의 취임과 함께 변화와 혁신으로 100년 은행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 광주은행은 '2018년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에서 브랜드 이미지, 이용가능성, 선호도 등 충성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또한 지역민들의 성원과 사랑 속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향토은행 '광주은행'이라는 브랜드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혁신경영

20~30대 직원 '유스퀘이커' 변화 주도

PPR 시스템 도입, 창구 종이문서 없애기

■나눔실천

고향 사랑 '광주·전남愛사랑카드' 3종

이용금액 0.5% 사회복지모금회 기부

■사회적 책임

한국화 공모 '광주화루' 문화 활성화 앞장

5월 7일까지 문화전당서 당선작 전시회

◇**변화와 혁신 통한 100년 은행**=광주은행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유스퀘이커(Youthquaker·젊은이들의 반란)모임이 결성됐다. 본부부서와 영업점에서 1명씩 선발된 20~30대 직원 150명으로 구성된 유스퀘이커는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더 새롭고, 즐거운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모였다.

이들은 1년간의 활동기간 동안 고객중심으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쉽고, 편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서비스를 재정비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광주은행이 고객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생활화해 고객과 지역을 잘 아는 '우리 모두의 은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스퀘이커의 활동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혁신의 또다른 큰 축인 광주은행의 PPR(Paperless Process Reengineering)시스템은 지난 2일 지방은행 최초로 전 영업점 창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고객이 작성하는 각종 신청서를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PPR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은 여러번 작성해야하는 항목 및 서명도 모바일을 통해 한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은행직원들 또한 종이 문서로 일일이 출력하면서 생기는 번거로움과 업무정리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은행 업무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고객에게도 만족을 주게 되었으며, 서류 준비나 마감업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돼 직원들 사이에서도 내부만족도도 크게 향상 됐다.

이같은 PPR 시스템 도입은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는 디지털 금융 시대를 대비하고, 비생산적인 업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고객응대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최종적으로는 고객에게 질좋은 금융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시스템 구축의 목적이다.

◇**고향 사랑, 나눔 실천**=광주은행은 매번 고객의 소비성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카드를 출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출시된 '광주·전남愛사랑카드'는 기존의 카드 사용 혜택과 더불어 고향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에도 참여할 수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이 고향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광주·전남愛사랑카드' 를 직접 선보이고 있다.

'광주·전남愛사랑카드', '광주·전남愛사랑 플래티늄카드', '광주·전남愛사랑 아너스(Honors)카드' 3종으로 구성된 이 카드는 이용금액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용금액의 0.5%를 고객이 선택한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다. 출시와 함께 광주광역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해 광주은행은 카드 이용금액의 0.5%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소외계층, 저소득층 등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업 대상 발굴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단순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지역과 함께, 지역민을 위한 지역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출시 41일만인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광주·전남愛사랑카드' 4800건, '광주·전남愛사랑 플래티늄카드' 380건, '광주·전남愛사랑 아너스(Honors)카드' 2045건 등 총 7225건이 발급됐다.

◇**사회적 책임 다하는 향토은행**=광주은행의 변화와 혁신은 비단 영업과 경영뿐 만이 아니다. 지난 10일에는 '제2회 광주화루'가 문을 열었다.

2017년 첫 문을 연 광주화루는 오랜 문인화의 전통을 간직한 광주·전남이 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 문화콘텐츠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작가를 대상으로 기획한 한국화 공모전이다.

광주은행이 '광주화루'를 기획한 것은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이 만연하는 시대에 한국 전통의 멋과 정서를 지역민에게 자주 선보이며 옛 것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되새기게끔 하고 싶었다.

엄격한 심사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 예술인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광주화루, 10인의 작가展'은 4월 11일부터 5월 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6관에서 펼쳐지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지역의 문화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함께 이룬 50년에 대한 감사함을 원동력으로 100년 은행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늘 가까이에서 지역민과 동행하며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에 고루 스며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한(왼쪽) JB금융지주 회장이 제2회 광주화루 입상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2018년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에서 브랜드 이미지, 이용가능성, 선호도 등 충성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선정됐다.

광주일보 창사66주년

fb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수탁
- 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청년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농지지원
- 청년창업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똑똑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문의전화 1577-7770